

2026. 1. 30.(금)

회 원 조 사 팀

2026년 안산기업 설 명 절 실 태 조 사

목 차

I . 조사 개요	2
II . 조사 결과	3
1. 설 명절 휴무 계획	3
2. 설 상여금 지급 계획	5
3. 체감경기	9
4. 임금 인상률	10
5. 기업경영 애로 사항	11

I 조사 개요

□ 조사 목적

- 안산지역 기업의 2026년 설 명절 휴무 계획 및 기타 경영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원방안 모색 및 기업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

□ 분석 대상

- 안산시 소재 기업

□ 조사 기간

- 2026년 1월 12일(월) ~ 1월 21일(수), 10일간

□ 조사 방법

- 온라인, 이메일, 팩스 조사

□ 조사 내용

- 설 상여금 지급 계획
- 설 선물 지급 계획
- 전년 대비 2026년 체감경기
- 2025년 임금 인상률, 2026년 임금 인상률 계획
- 기업경영 애로 사항

□ 응답 현황

구 분		응 답 수	응답비율
기업 규모	50인 미만	51개사	53.7%
	50인 이상 ~ 100인 미만	27개사	28.4%
	100인 이상	17개사	17.9%
합 계		95개사	100.0%

II

조사 결과

1. 설 명절 휴무 계획

□ 휴무 계획 여부

- 안산기업의 84.2%는 ‘전체 휴무 계획’ 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, ‘일부 생산라인 가동(13.7%)’ , ‘모든 생산라인 가동(2.1%)’ 순으로 응답.
- 설 연휴에 공장 가동(일부 가동 포함)을 한다고 응답한 기업(15.8%)의 72.3%가 ‘납기 준수를 위하여’ 라고 응답함.

설 명절 연휴 휴무 계획

(단위: %)



설 연휴 공장가동(일부 가동) 사유

납기준수	계약 물량 증가	인력 부족	수출경쟁력 강화	생산라인을 멈출 수 없는 시스템상 문제
72.3%	11.2%	5.5%	5.5%	5.5%

※ 중복 응답 가능

□ 설 명절 휴무 기간

○ 휴무 시행 기업(84.2%) 중 77.5% (62개사)가 ‘주말 포함한 5일’로 계획한다고 응답하였고, 6일 휴무(11.3%), 7일 휴무(10.0%), 8일 이상(1.2%)으로 응답.

* 설 명절 연휴 기간: 2024. 2. 14.(토) ~ 2024. 2. 18.(수), 5일(토·일요일 주말 포함)

* 설 명절 법정공휴일: 2024. 2. 16.(월) ~ 2024. 2. 18.(수), 3일

기업 규모별 설 명절 휴무기간(%)

구 분	주말 포함 5일 (법정공휴일만 휴무)	주말 포함 6일	주말 포함 7일	주말 포함 8일 이상
전 체	77.5	11.3	10.0	1.2
50인 미만	45.0	5.0	5.0	1.2
50인 이상 ~ 100인 미만	20.0	1.3	3.8	-
100인 이상	12.5	5.0	1.2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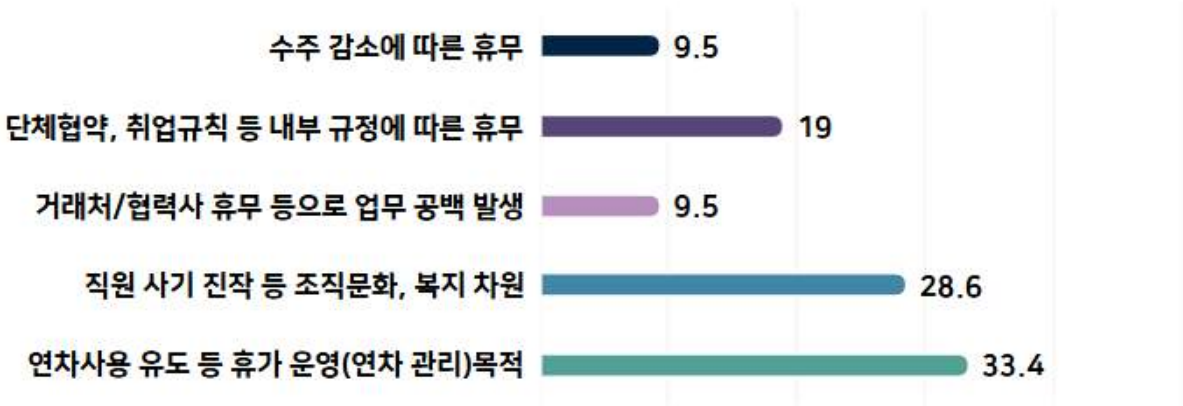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※ 휴무 시행기업 대상

○ 주말 포함한 6일 이상 휴무하는 기업 중 ‘법정공휴일 외 추가로 휴무하는 이유’로는 ‘연차 사용 유도 등 휴가 운영(연차 관리) 목적(33.4%)’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.

법정공휴일 외 추가휴무를 실시하는 이유

(단위: %)

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※ 중복 응답 가능

2. 설 상여금 지급 계획

□ 설 상여금 및 선물 지급 형태

- 안산기업 중 설 상여금 및 선물 지급 예정인 기업은 85.3%로 전년 대비 5.3%p 감소함. (미지급 9.5%, 지급 계획 미정 5.2%)
- 상여금과 선물을 모두 지급하는 기업은 28.4%로 전년 대비 8.3%p 감소, 상여금만 지급하는 기업은 13.6%로 전년 대비 1.1%p 감소, 선물만 지급하는 기업은 58.0%로 전년 대비 9.5%p 증가함.
- 상여금 미지급 사유로는 ‘선물 등으로 대체(34.1%)’, ‘지급규정 없음(34.1%)’, ‘연봉에 포함(20.5%)’, ‘재무상태 악화(6.8%)’, ‘기타(귀향비 지급, 4.5%)’ 순으로 응답.
-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중 정기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은 64.7%로 전년 대비 9.0%p 증가, 특별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은 35.3%로 전년 대비 6.1%p 감소,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 모두 지급 예정인 기업은 없었으며, 전년 대비 2.9%p 감소함.

안산기업 설 상여금 및 선물 지급 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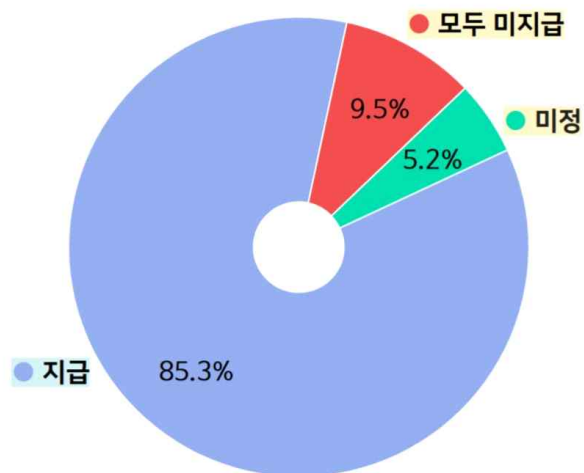
대분류		비율	중분류	비율	세분류	비율
지급		85.3% (5.3%p▼)	상여금+선물 모두 지급	28.4% (8.3%p▼)	정기 상여금	64.7% (9.0%p▲)
			상여금만 지급 (선물 미정 2.1% 포함)	13.6% (1.1%p▼)	특별 상여금	35.3% (6.1%p▼)
					정기+특별 상여금	0% (2.9%p▼)
			선물만 지급 (상여금 미정 13.5% 포함)		58.0% (9.5%p▲)	
상여금+선물 모두 미지급		9.5% (5.5%p▲)				
미정	상여금+선물 모두 미정	4.2% (1.5%p▲)				
	상여 미지급 선물 미정	1.0% (1.7%p▼)				

※ 괄호의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.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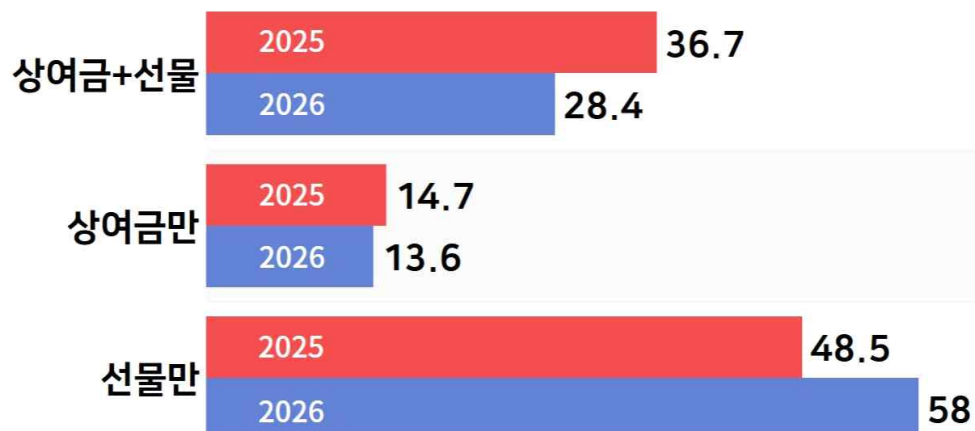
【대분류】

설 상여금 및 선물 지급 여부 (단위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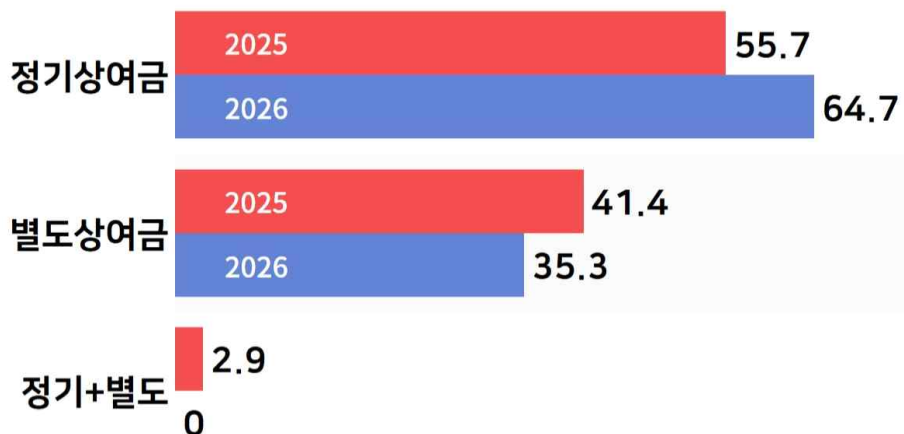
【중분류】

지급 형태 (단위%)



【세분류】

지급 방식 (단위%)



□ 설 상여금 지급 수준

- 설 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 중 31.8%가 설 정기상여금을 ‘일정액’ 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, ‘기본급의 50% 이상(27.3%)’, ‘기본급의 50% 미만(22.7%)’, ‘기본급의 100% 이상(18.2%)’ 순으로 응답

- ‘일정액’ 의 경우 지급 수준은 평균 410,000원*

(*일정액으로 응답한 기업 중 정확한 지급액을 기재한 기업을 기준으로 산출함.)

안산기업 설 정기상여금 지급 수준

구 분	기본급의 50% 미만	기본급의 50% 이상	기본급의 100% 이상	일정액	일정액 지급수준
2026년	22.7%	27.3%	18.2%	31.8%	410,000원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- 설 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 중 50.0%가 설 특별상여금을 ‘일정액’ 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, ‘기본급의 50% 미만(33.4%)’, ‘기본급의 100%이상(8.3%)’, ‘기본급의 50% 이상(8.3%)’ 순으로 응답

- ‘일정액’ 의 경우 지급 수준은 평균 520,000원*

(*일정액으로 응답한 기업 중 정확한 지급액을 기재한 기업을 기준으로 산출함.)

안산기업 설 특별상여금 지급 수준

구 분	기본급의 50% 미만	기본급의 50% 이상	기본급의 100% 이상	일정액	일정액 지급수준
2026년	33.4%	8.3%	8.3%	50.0%	520,000원
2025년	40.0%	20.0%	22.9%	17.1%	520,000원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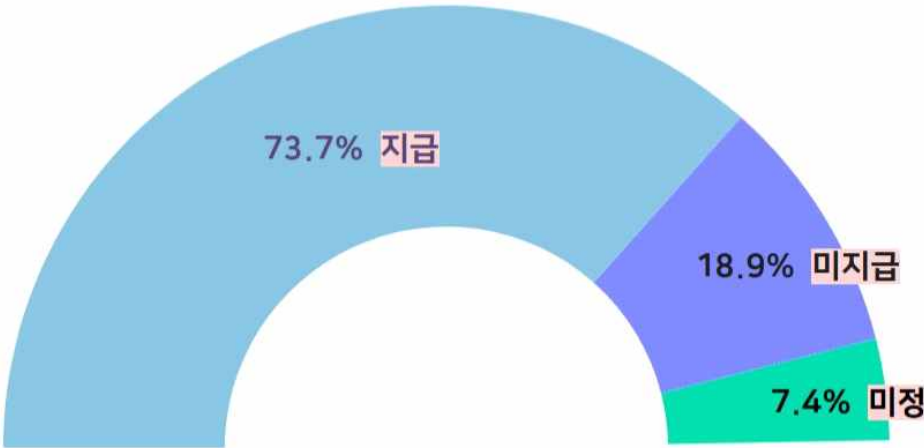
□ 설 선물 지급 여부

○ 안산기업의 73.7%가 ‘설 선물을 지급’ 한다고 응답하였고, ‘미지급(18.9%)’, ‘미정(7.4%)’ 순으로 응답

- 설 선물 지급하는 기업 중 57.1%가 ‘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선물’ 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응답.

설 선물 지급 여부

(단위: %)



안산기업 설 선물 가격대

4만원 이하	4만원 초과 6만원 이하	6만원 초과 10만원 이하	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	30만원
14.3%	57.1%	21.4%	4.3%	2.9%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 ※ 선물가격은 예상치로 응답

3. 체감경기

□ 전년 대비 2026년 체감경기

- 안산기업의 57.9%가 전년 대비 체감경기를 ‘악화’ 될 것으로 응답함.
(‘매우 악화(24.2%)’ + ‘다소 악화(33.7%)’)

* 전년도 설 명절 기간: 2025. 1. 25. ~ 1. 30.(토·일요일, 대체공휴일 포함)

안산기업 체감경기

구 분	매우 악화	다소 악화	지난해와 유사	호전	매우 호전
2026년	24.2%	33.7%	34.7%	7.4%	-
2025년	30.7%	41.3%	22.0%	6.0%	-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□ 체감경기 악화의 주요 원인

- 안산기업의 30.7%가 주요 원인으로 ‘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’를 꼽았으며, ‘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증가(23.7%)’, ‘수출 둔화 및 해외 수요 감소(13.1%)’, ‘인건비 상승 및 인력 수급 어려움(13.1%)’, ‘대외경제 및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(12.3%)’, ‘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 확대(5.3%)’ 순으로 응답.

체감경기 악화 주요 원인

구분	응답(%)	비고
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증가	23.7	
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	30.7	
수출 둔화 및 해외 수요 감소	13.1	
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 확대	5.3	
인건비 상승 및 인력 수급 어려움	13.1	
대외경제 및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	12.3	
기타	1.8	환율, 관세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※ 중복 응답 가능

4. 임금 인상률

□ 전년(2025년) 임금 인상률

- 안산기업의 53.7%가 전년도 임금 인상률은 ‘3~5%’ 라고 응답했고, ‘동결(23.1%)’, ‘1~2%(17.9%)’, ‘6~7%(5.3%)’ 순으로 응답

안산기업 2025년 임금 인상률

동결	1~2%	3~5%	6~7%	기타
23.1%	17.9%	53.7%	5.3%	0%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□ 전년 대비 2026년 임금 인상률 계획

- 안산기업의 31.6%가 전년 대비 임금 인상률 계획을 ‘1~2%’ 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, ‘동결(28.4%)’, ‘3~5%(27.4%)’, ‘기타(8.4%)’, ‘6~7%(4.2%)’ 순으로 응답
- 기타 응답으로는 ‘미정’, ‘임금 동결하되 성과급 확대’ 라고 응답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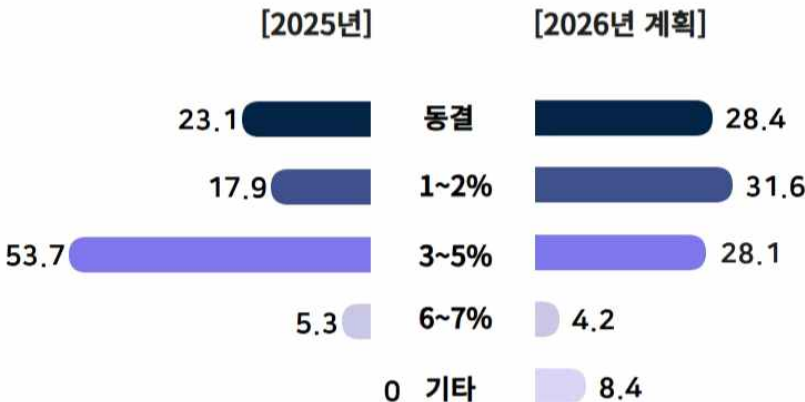
안산기업 2026년 임금 인상률 계획

동결	1~2%	3~5%	6~7%	기타
28.4%	31.6%	27.4%	4.2%	8.4%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임금 인상률

(단위: %)



5. 기업경영 애로 사항

- 안산기업의 39.7%가 ‘매출’ 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, ‘원자재 가격(34.0%)’, ‘고용(14.8%)’, ‘규제(9.6%)’, ‘기타(1.9%)’ 순으로 응답
- 기타 응답으로는 ‘노동조합’, ‘관세’ 라고 응답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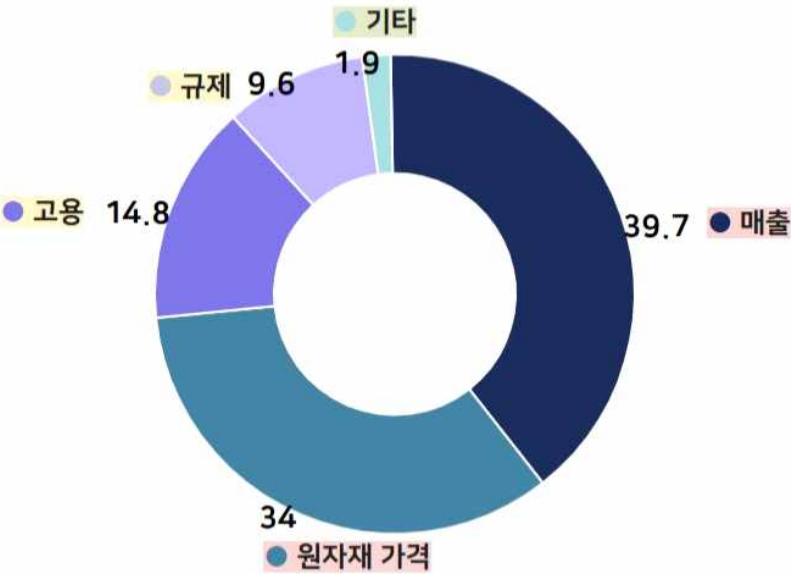
기업경영 애로 사항(%)

고용	매출	원자재 가격	규제	기타
14.8%	39.7%	34.0%	9.6%	1.9%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±0.1%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 ※ 중복 응답 가능

기업 경영에 가장 큰 애로사항

(단위: %)



- ※ 안산상공회의소에서 발간되는 보고서 및 각종 자료는 홈페이지 (<http://ansancci.korcham.net>)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- ※ 본 책자에 수록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조사팀 【T. 070-4571-5812】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본 보고서에 대하여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, 타 용도로 사용 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※ 본 보고서의 내용은 대표의견이 아니며,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.

○ 발행처: 안산상공회의소

○ 발행일: 2026. 1. 30.

[비매품]